

우리 주변의 이단들

탁지일 <<< 부산장신대학교 교수 / 교회사 / 월간 현대종교 편집인

한국에서 활동 중인 이단들은 대략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 첫 번째 유형은 외국에서 들어온 단체들이다. 이들 외국계 이단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Made in U.S.A.”라고 할 수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 등이 여기에 속한다. 두 번째 유형은 한국에서 생겨난 단체들, 즉 “Made in Korea” 이단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일제 강점기 또는 한국전쟁 전후의 사회적 혼란기에 발흥했다. 통일교, 전도관, 장막 성전 등이 여기에 속한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위의 두 유형의 단체들에게 영향을 받아 시작된 제2세대 이단들이다. 예를 들면, 안식교의 영향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통일교의 영향을 받은 정명석(JMS), 장막 성전의 영향을 받은 신천지 교회 등이 여기에 속하는데, 현재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단체들이다.

이들 이단 단체들의 일반적인 특징은 사람(교주)을 신격화하고, 비성서적인 교리를 가지고 있으며, 비상식적인 방법으로 포교하고, 교세 확장을 위해 비종교적인 일들에 지나친 관심을 보이며, 그리고 배타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다. 또한 최근 이단들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는 교회로

부터 정통성을 인정받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주변 사회의 공신력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기존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공격적인 포교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1. 교회 안으로 침투하는 이단들 (신천지 교회의 사례)

이단들의 포교 방법들이 점점 과감해지고 있다. 최근 가장 눈에 띄는 이단 현상은 교회 주변을 맴돌던 우리를 미혹하던 이단들이 교회 안으로 침투하여 공격적인 포교 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성서의 말씀처럼 거짓 형제들이 우리 안으로 가만히 들어와 우리들이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애쓰는 일들이 실제로 한국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 최근 큰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교회)의 소위 추수꾼(기성 교회 안에서 정체를 감추고 포교 활동을 벌이는 신천지 신도)들이 소위 추수밭(기성 교회)에 조직적으로 잠입하여 활동함으로써 많은 신앙공동체들과 가정들에게 심각한 어려움을 안겨주고 있다.

신천지는 다양한 포교 전략을 구사한다. 전남대학교에서는 동아리 연합회를 장악하여 건전한 기독교 동아리들을 제명시킨 사건도 있었다. 이들은 교회에 침투하여 청년 회장이 되기도 하고, 청년부 성경공부 순장이 되어 청년들을 미혹하고, 구역장이 되어 구역식구들을 통째로 신천지로 데리고 가기도 한다. 일단 신천지에 미혹되어 들어가게 되면 6개월의 교리교육 과정과 2개월의 새신자교육 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 기간을 마치면 교회에 침투하여 활동할 수 있는 소위 '추수꾼의 사명'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사실은 신천지가 교회 안에 침투하여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교회 구성원들 간에 상호불신이 싹트고 있다는 점이다. 목회

자들은 이제 교회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는 새로운 신지들에 대하여 기쁨과 기대감을 갖기보다는 신천지 교인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느끼기도 한다. 최근에 공개된 신천지 교회의 추수꾼교육 동영상은 소위 “산 옮기기” 작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작전은 50여 명 이하의 교회를 통째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정상적인 종교 단체가 아닌 것은 분명하다.

신천지로 인한 교회 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첫째, 신천지 관련자 처리를 위한 공신력 있는 정보가 필요하다. 심증만으로 정죄하는 것을 피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다. 둘째, 최근 유포되고 있는 신천지 교적부에 이름이 있거나 다른 정황으로 신천지 관련이 의심되는 경우, 정확한 경위 파악과 함께 현재 관련성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한다. 셋째, 현재도 관련된 것이 명백할 때에는 교회법에 따라 공개적이고 신속정확하게 처리하고, 결백을 주장할 경우 충분한 권면과 함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예의 주시한다. 넷째, 이미 신천지를 이탈했다 하더라도 교적부의 명단에 포함된 교인의 경우, 과거 신천지 관련 사실은 부인할 수 없겠지만 교회가 정한 바에 따라 성실한 관계회복 과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 다섯째, 주변에서는 기도와 배려를 통해 관련자들이 치유되고 새롭게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교회가 신천지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동안 신천지는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였다. 신천지 문제가 수차례 언론에 상세히 보도되었고, 신천지가 성역화하고 있는 경기도 과천에 ‘신천지 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가 최근 발족하여 활동하고 있다. 얼마 전 범시민연대의 활동으로 과천에 새로운 본부 건물을 지으려던 신천지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기도 하였다. 그러나 다소 그 기세가 수그러든 듯하나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형편이다.

2. 사회봉사를 앞세우는 이단들(‘하나님의 교회’의 사례)

많은 한국계 이단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아시아, 동유럽,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등 세계 곳곳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매개로 하여 효과적인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물론 이들의 사회봉사 활동은 그들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포교 수단인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저개발사회의 구성원들은 우리처럼 이단과 정통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 나라에서 사회적 순기능을 하고 있는가에 관심을 둘 뿐이다. 이를 잘 파악하고 있는 이단들은 세계 곳곳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침투하고 있다.

최근 사회봉사 활동으로 두각을 나타내는 이단이 ‘하나님의 교회’ 세계복음선교협회(이하, ‘하나님의 교회’)이다. 이들은 1985년에 사망한 부산 해운대 출신의 안상홍이라는 인물을 “재림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데, 이들의 교세는 수십만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주기도문과 비슷한 소위 ‘하나님의 교회’ 기도문을 가지고 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히늘에 계신 아버지 안상홍 님, 아버지께서 강림하실 날은 임박하였사오나 우리들은 아무 준비도 없사오니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아버지 강림하실 날에 부족함이 없이 영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상홍 님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우리의 실소를 자아내는 이러한 교주의 우스꽝스러운 신격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는 ‘하나님의 교회’의 존재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들이 활발하게 사회봉사 활동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들은 이미 수많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표창을 받았으며 심지어 중앙정부로부터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 등을 받아 오고 있다.

해외 활동도 활발한 가운데 이들의 포교 활동과 관련한 여러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최근 해외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이메일 상담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 내용들은 가정불화와 가출 등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다. 북미에서 이민 생활을 하는 한 가족은 '하나님의 교회'로 인하여 본국의 친척들과의 관계도 소원해지고 자녀들도 정신적인 고통을 당해왔다는 내용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다른 한 경우는 미국인이 보낸 상담 이메일인데, 자신의 딸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장하는 2012년 종말을 믿고 가출했다는 내용이었다.

두 피해자 모두 하나님의 교회에 관한 정보를 얻기를 원했다. 해외에서는 하나님의 교회가 활발한 포교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반면 이들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정보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얼마 전 동유럽의 한 선교사를 만나 대화하던 중 그분의 사역지에도 이미 하나님의 교회가 포교 활동을 시작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같이 이단에 대한 대처 없는 선교는 밑 빠진 독에 물붓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나님의 교회는 아시아, 아프리카, 동유럽에서 사회봉사 활동을 통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몽골신문에는 하나님의 교회의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기사가 전면에 게재된 바 있으며, 아프리카의 한 대통령은 한국 방문 일정을 마친 후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스스로 하나님의 교회를 찾기도 했다.

하나님의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들은 자신들이 받은 수많은 표창장들을 내 놓으며 왜 자신들이 이단이라고 반문한다. 하나님의 교회의 신학원에서는 40학점의 이단학을 가르치는데 그 중 20학점이 개신교에 관한 것이다. 이제는 자신들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이단이라는 자신감 넘치는 주장을 하고 있다.

사회봉사 활동에 힘을 쏟는 이들 이단 단체들은 예전에는 한국 교회의 눈을 의식하고 한국 교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도 하였다. 하지만 최근 이단들은 한국 교회로부터 그 교리적 정통성을 인정받기보다는, 오히려 주변 사회의 공신력을 인정받기 위해 힘을 쓰고 있다. 이들은 교회가 아무리 자신들을 교리적으로 이단으로 규정한다 해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기성 교회를 향해 더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봉사에 적극적인 이단들로 인해 한국 교회는 위기를 맞고 있다. 다종교의 한국사회는 지탄받는 기성 교회보다는 사회봉사 활동에 적극적인 이단을 오히려 선호하는 경향을 보여 준다. 교회 안팎의 신종 이단들의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단들보다 더욱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들이 주님 안에서 더욱 새로워지고 순결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더 이상 사회봉사 활동을 하며 성장하는 최근 이단들을 막아낼 수 없다.

3. 정계 진출을 시도하는 이단들 (통일교의 사례)

이단들에게 정치권력을 소유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유혹이다. 한국 이단들은 군사정권하에서의 반공 운동을 통해 그 성장을 위한 경제적 기초를 마련하였다. 정치에 끊임없는 관심을 보여 온 통일교가 그 대표적인 예이다. 특히 통일교는 2008년 총선에 평화통일가정당(이하, 가정당)이란 이름으로 참여하였다. 가정당은 “참가정 행복시대를 실현하는 정당”의 기치를 전면에 내걸고 전국 245개 모든 지역선거구에서 후보를 내세웠다.

통일교의 모든 사회·정치·경제 활동은 그들의 교리와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들 활동의 모든 초점은 통일교의 핵심 교리서인 《원리강론》에 맞추어져 있다. 《원리강론》에 따르면, 뱀과 인간(아담과 하와)의 성적 범

죄로 인하여 인류가 타락하게 되었고, 이를 회복하기 위해 제2의 아담인 예수가 메시아로 강림하였으나 실패하였으며, 마침내 제3의 아담(문선명)이 지상에 왔다는 것이다. 그리고 재림한 메시아(문선명)를 통해 한반도에 지상천국이 건설된다는 것이 이 교리서의 주장이다. ‘문선명이 통치자로 군림하는 지상천국의 건설’, 바로 이것이 통일교의 지상목표이자 정계 진출의 실제적인 이유인 것이다.

통일교가 그들 정당의 공식 명칭을 <평화통일가정당>으로 정한 데는 교리적인 이유가 있다. 통일교는 문선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참가정들이 지상천국을 건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동력이 된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총선에 참여한 통일교는 일간 신문 광고를 통해, “가정이 행복한 나라”, “가정이 먼저입니다”, “가정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정당” 등의 내용들을 선전하였다. 가정당의 강령 제1조도 “가정의 가치 수호”에 관한 것이다.

혹자는 통일교의 문선명이 사망할 경우 통일교는 쇠퇴하리라는 장밋빛 전망을 내놓는다. 하지만 통일교는 ‘종교 조직’일 뿐만 아니라 영향력 있는 ‘경제 조직’이다. 종교 조직은 교주의 존재 유무에 따라 그 존재가 논의될 수 있으나, 경제 조직은 대체적으로 그 창업자가 사망할 경우에도 다양한 이해관계에 기초한 새로운 후계 구도가 구축되고 지속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최근의 통일교 활동을 보면, 문선명의 아들들을 통해 체계적인 후계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맺음말

이단 대처를 위한 한국 교회의 네트워크 구축과 연대 활동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게 요구된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힌 뒤에도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선

한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열심히 전하였지만, 반면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옥에 갇히자 바울보다 앞서고자 하는 시기와 질투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모습에도 옥중의 바울은 낙망하지 않고 오히려 기뻐한다. 그는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고 고백한다(빌 1:12-18). 이단 사이비에 맞서는 하나님의 선한 세력들은 효과적인 이단대처 활동을 위해 교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함께 연대하며 서로 돕고 신뢰해야 한다.

이천 년 교회 역사는 단 한 차례도 이단이 없었던 적이 없었음을 증언하고 있다. 교회의 역사는 일면 이단과의 투쟁의 역사이며, 교회의 신학은 이러한 투쟁을 통해 만들어졌다. 이단과의 싸움은 법적인 논리 싸움 혹은 신학적인 교리 논쟁을 넘어선 영적 전쟁이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이단과의 투쟁에 있어서 그 최후의 승리는 우리 것임을 성서와 기독교 역사가 분명히 예언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단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나, 우리에게는 성서가 전해 주는 최후 승리에 대한 변함없는 소망이 있다.

:: 탁지일 장로회신학대학교(Th.B.)와 연세대학교(Th.M.)를 나와 미국 San Francisco 신학교(M.Div.)와 Graduate Theological Union(M.A.) 및 캐나다 토론토대학교 St. Michael's College(Ph.D.)에서 공부했다. 지금은 부산장신대학교 교회사 교수이며, 월간 <현대종교> 편집인,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 위원으로 있다.